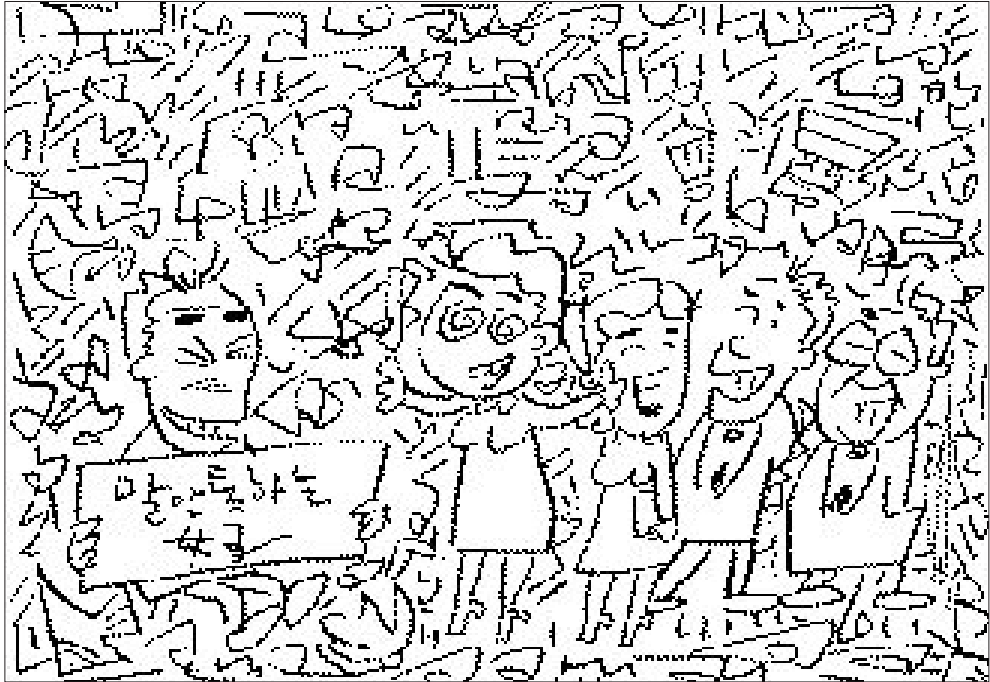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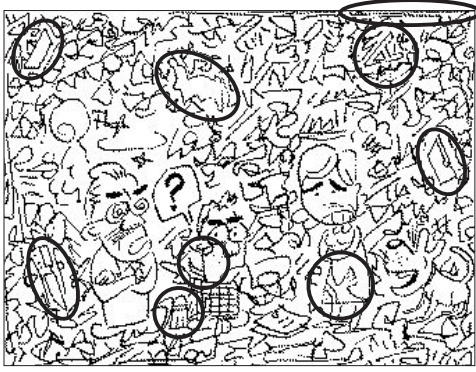
숨은그림찾기 < 99 >



〔찾아보세요〕 사람 옆 얼굴, 음료, 펜촉, 고추, 열대어, 다리미, 은행잎, 바늘, 셔플록

말 안 통하는 여자 시리즈

태종대를 대학이라고 우기는 여자.
허장강을 강이라고 우기는 여자.
몽고반점을 중국집이라고 우기는 여자.
안중근을 내과의사라고 우기는 여자.
탑골공원과 파고다공원이 다르다고 우기는 여자.
LA가 로스앤젤레스보다 멀다고 우기는 여자.
으악새가 새라고 우기는 여자.
구제역을 양재역 다음이라고 우기는 여자.
비자카드 받아놓고 미국 비자 받았다고 우기는 여자.



지난주 정답

셔플록, 부엌칼, A자, 음료, 바늘, 열대어, 우리나라 지도, 펜촉, 종이배

그림 속에 숨겨진 사물들을 찾아보세요. 찾은 사물을 그림에 표시한 후 매주 화요일까지 신문을 오려 보내주시면 정답자를 추첨, 상품권(2만원)을 드립니다.
▲보내실곳 : 광주시 동구 금남로 2가 20-2번지 광주일보사 여론매체부
▲당첨자 : 윤효선<광주시 북구 두암동> 김수정<광주시 북구 각하동>

아하! 오늘이 바로 그날

“조국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먼저 자문해 보라”

젊은 미국의 상징 'JFK' 1963년 11월22일 암살

1963년 11월 22일 낮 12시30분 몇 발의 총성이 울렸다. 연설을 위해 텍사스 주 댈러스 시 ‘댈러스 트레이드 마트’ 빌딩으로 가며 무개차에서 군중에게 손을 흔들던 대통령은 순간 머리를 떨구며 쓰러졌다. 옆에 있던 대통령 부인 재클린은 놀란 남편의 머리를 잡고 ‘오, 노(Oh, No!)’를 연발했다. 환호 인파로 뒤덮였던 주위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다.

44년전인 11월 22일 미국 35대 대통령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암살범이 쏜 총탄 2발을 맞고 숨졌다. 당시 언론은 ‘비명에 간 ‘뉴 프런티어’의 기수’등의 제목으로 크게 보도했다. 그는 피격 즉시 인근 파크랜드 메모리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경찰은 사건발생 2시간 뒤 유력한 용의자로 ‘리 하비 오스왈드’를 검거했지만 용의자 오스왈드도 이를 뒤인 11월 24일 경찰이 버젓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살됨으로써 케네디 암살사건은 영원히 미궁 속에 빠졌다.

이 사건의 조사를 맡은 ‘워런위원회’는 이듬해 “사건은 공산주의자 리 하비 오스왈드의 단독 범행이었으며, 어떤 배후도 없었다”고 발표했지만 의문은 끊이지 않았다. 당시 반 케네디 감정도 찾아보기 힘들었다. 케네디 대통령이 댈러스 공방에 도착한 뒤 군중 가운데 젊은이들은 ‘재키’를 외치며 재클린을 보려고 앞으로 밀고 나왔고 케네디 대통령도 젊은 여인들에게 둘러 싸여 있었다.

젊고 용기있는 지도자를 바라던 미국민들에게 그는 ‘미국의 상징’으로까지 받아들여졌다. 그만큼 그의 암살은 미국민들에게, 전세계인들에게 충격으로 받아들여졌고 40년이 넘은 지금까지도 케네디 대통령의 죽음을 둘러싼 갖가지 설과 억측은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조셉 P 케네디와 로즈 케네디의 9남매 중 2남으로, 1917년 보스턴에서 태어난 케네디 대통령은 지난 1961년 1월 20일 취임했다. 당시 43세로, 미역사상 최연소다.

“미국인들이여, 여러분들의 조국이 당신들에게 무엇을 해 줄 수 있을 것인가를 묻지 말고 여러분들이 조국을 위해 먼저 무엇을 할 것인지 자문해 보라”는 그의 취임 연설은 역사에 기록될 만한 미 대통령의 명연설로 꼽히며 오르내린다.

연설 뿐만 아니라. 젊은 대통령이 3년도 안되는 짧은 기간동안 펼친 정책 때문에 여지껏 그는 미국인에게 가장 사랑받는 대통령으로 남아 있다. 소련과 쿠바에 대한 강력한 대외정책을 비롯, 흑백차별을 금지하는 민권법안 제정, 최초의 달정복 등 ‘뉴 프런티어’라고 불리는 그의 정책은 열광적인 지지를 받았다.

오는 12월 19일은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일이다. 국민들에게 사랑받는 대통령을 뽑는 일, 국가를 위해 국민들이 할 일이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뉴스퀴즈

90. ‘2007 남북정상선언’ 이행을 위한 제1차 남북총리회담이 지난 16일 8개조 49개항의 합의서를 채택하고 마무리됐습니다. 특히 남북은 이 공동 활성화를 위해 내년부터 인터넷과 유·무선전화 서비스를 시작하고 연내 남북 인원과 차량들의 공동 출입허용 시간을 확대하는 등 공동의 ‘3통(통신·통행·통관)’ 문제 개선방안에 합의했습니다. 이 공단은 어디일까요.
①개성공단 ②여천공단 ③하남공단 ④송암공단

참여 방법

정답을 표시한 뒤 매주 일요일까지 신문을 오려 보내주시면 2주마다 당첨자를 선정, 1위 삼성전자 고급 진공청소기 1대, 2위 무등파크호텔 숙박권 1매를 보내드립니다. (연락전화번호 미표기시 추첨에서 제외)

보내실 곳

광주시 동구 금남로 2가 20-2번지 광주일보사 여론매체부 퀴즈담당자 앞 우편번호 501-7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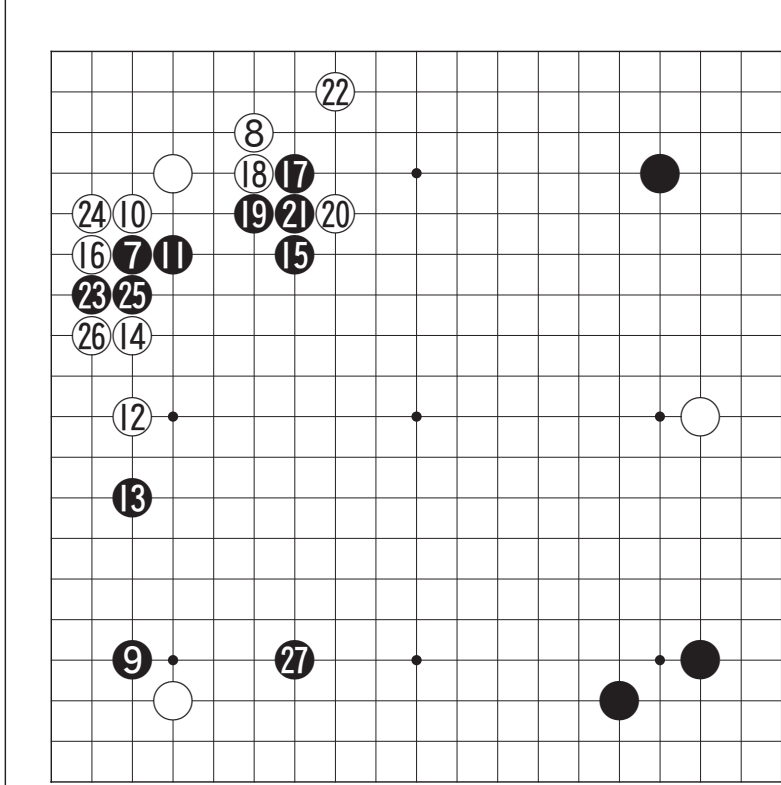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1월 21일(음 10월 12일 己未)
子	36년丙子생 나이는 숫자일 뿐 음양기에 진행하라. 48년戊子생 화재를 주의하라. 60년庚子생 상대에게 무엇이트 더 주어야. 72년壬子생 어성성의 안정을 지키면 대고는 없다. 84년甲子생 속타는 일이 생기지만 걱정할 일은 아니다. 행운의 숫자 : 31,35
丑	37년丁丑생 바라던 일이 이루어진다. 49년己丑생 사소한 말이 시비가 될 수도 있다. 61년辛丑생 문단속을 잘해야 하리라. 73년癸丑생 고달프고 우울하니 마음의 안정을 취하라. 85년乙丑생 순리대로 처리하면 득은 크게 된다. 행운의 숫자 : 34,44
寅	38년戊寅생 아내가 힘이 드니 아내를 살펴봐라. 50년庚寅생 직장과 자녀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62년壬寅생 자녀는 자신의 미래이니 자기의 노력에 따라 달라진다. 74년甲寅생 좋은 사람과 하루가 되리라. 행운의 숫자 : 17,45
卯	39년己卯생 수하인과의 금전거래는 불람거래가 될 수도 있다. 51년辛卯생 양보 받기 보다는 먼저 양보하면 좋은 날이 된다. 63년癸卯생 조금만 더 노력하면 주변의 부러움을 살 것이다. 75년乙卯생 편안한 하루가 된다. 행운의 숫자 : 03,26
辰	40년庚辰생 물건이 안보일 수도 있으니 문단속을 잘하라. 52년壬辰생 말다툼은 시비로 비화되니 절대로 피해야 한다. 64년甲辰생 시비는 화해로 처리해야 뒤따라 없다. 76년丙辰생 저녁 늦게 외출하면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다. 행운의 숫자 : 39,40
巳	41년辛巳생 생각지도 않은 잔치 집에 갈수도 있으니 기분은 미미하다. 53년癸巳생 속전속결로 추진하면 대재가 생긴다. 65년乙巳생 외려내려 내적인 것에 마음을 쓰라. 77년丁巳생 중상을 입으면 가사가 편안하리라. 행운의 숫자 : 01,38
午	42년戊午생 숨이 가쁜 하루가 될 것이니 준비를 잘하라. 54년甲午생 할 일은 분명하게 처리하고 다시 한번 점검하라. 66년丙午생 오전은 흥하나 오후는 길하다. 78년戊午생 옛 일이 괴로움으로 나타난다. 행운의 숫자 : 09,40
未	43년癸未생 상황이 변하니 주의 깊게 살펴봐라. 55년乙未생 근처에서는 괴로움이 먼 곳에서는 좋은 소식이 온다. 67년丁未생 천리 길도 한걸음부터 차근차근 전진하라. 79년己未생 결정을 신중하게. 행운의 숫자 : 07,25
申	44년甲申생 추진하는 일을 꼼꼼히 점검하면 실패는 없다. 56년丙申생 부부간에 다정한 시간을 마련하라. 68년戊申생 자녀의 고민을 먼저 생각해 보고 대화를 해봐라. 80년庚申생 주변의 이웃과 친척을 찾아뵙고 안부를 확인 해봐라. 행운의 숫자 : 05,20
酉	45년乙酉생 자기의 지위는 자신이 지키도록 노력하라. 57년丁酉생 친한 사람을 알아보지 마라 출한 일이 생긴다. 69년己酉생 출구고 노래를 하니 즐겁기만 하다. 81년辛酉생 교통사고를 주의하고 음주운전은 아예 생각도 하지마라. 행운의 숫자 : 03,12
戌	46년丙戌생 도움을 청하는 사람에게 성의껏 협조하라. 58년戊戌생 뒤로 주고 앞으로 받으니 활동을 많이 하라. 70년庚戌생 희망은 꼭 이루어진다고 믿는 이에게 온다. 82년壬戌생 혼린 날을 대비해서 우산을 준비하라. 행운의 숫자 : 21,38
亥	47년丁亥생 생각대로 행동도 거리낌이 없고 마음은 편안하리라. 59년己亥생 멀리서 친구가 오니 즐겨우리라. 71년辛亥생 도움을 주면 답은 그 이상이다. 83년癸亥생 뜻밖의 재난이 올 수 있으니 주변을 살펴봐라. 행운의 숫자 : 14,29

www.cafe.daum.net/sajoo114 ☎11-632-6121

운수는 나빠도 상처는 흉터없이!! DermaPlast

더마플라스트 밴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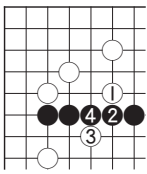
제품문의문의: (주)호원약품 062-383-58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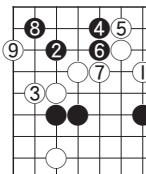
전국 아마최강 결승전

문병권 6단은 19세로 광주출신이다. 초등학교 시절에는 필자에게 지도를 받기도 했고 한국기원의 연구생 1군으로 있다가 탈퇴하여 이번 시합에 출전했다. 연구생 1군은 알려진 바와 같이 입단만 못했다 뿐이지 프로에 버금가는 실력자로 보면 된다.

최근의 아마대회를 보면 왕년의 고수들은 연구생으로 있다가 나온 신진 고수들에게 거의 맥을 못추고 있는 실정이다. 그래서 요즘의 아마대회는 결승가



〈참고도1〉



〈참고도2〉

지는 시니어와 주니어를 갈라 시합을 치르는 방식을 거의 모든 대회에 채택하고 있다. 백 16이 선택의 기로였다. 이 수로는 ‘참고도1’의 5가지가 많이 두어지며 또는 ‘참고도2’의 백 1로 두는 수도 있다. 이 수는 흑 2로 쳐들어 왔을 때 단점을 방비한 수로 9로 흑을 잡을 수가 있다. 흑 27로 협공하여 흑이 선착의 효과를 살리고 있는 국면이다. <오규철 9단·본보 바둑해설위원>

바둑소식

이세돌, 삼성화재배 먼저 뚫다

이세돌 9단이 20일 삼성화재 유성연수원에서 열린 제12회 삼성화재배 세계바둑오픈 준결승전 3번기 제1국에서 중국의 황이중 6단에게 319수까지 가는 접전 끝에 백 2집 반승을 거뒀다.

이세돌은 종반까지 우열을 알 수 없는 팽팽한 형세 속에서 좌귀각 대마를 모두 죽이는 대신 상반 흑 일단을 잡는 대형 바둑치기를 감행한 끝에 확실한 승기를 뉘었다.

한편 이세돌과 함께 4강에 올랐던 박영훈 9단은 중국의 1인자 구리 9단에게 190수 만에 흑으로 불계패했다. 3번기로 치러지는 준결승 제2국은 하루 휴식 뒤 22일에 속개된다. /연협뉴스

굿모닝 잉글리쉬 <1038>

Where can I find a map and a dictionary?
사전하고 지도는 어디에 있습니까?

A : Where can I find a map and a dictionary?
B : The maps are in the travel section and the dictionaries are in the reference section.
A : Thanks. You have a good memory and nice service.
B : You are welcome.

A : 사전하고 지도는 어디에 있습니까?
B : 지도는 여행 코너에 있고요, 사전은 참고도서 코너에 있습니다.
A : 고맙습니다. 기억력이 대단하시군요, 친절도 하시고.
B : 물론요.

* reference : 참고, 참고서
* memory : 기억력
* Where can I find ~? : 어디에 ~있습니까?
[응용] 어디에 화장실이 있습니까?
= Where can I find a restroom?

오하오우 니혼고 <1038>

それは「アットマク」って言うんですよ。
그건 '애트마크'라고 하는 겁니다.

A : ちょっと聞きたいことがあるんだけど、インターネットアドレスで丸の中に「a」というのがありますが、何と言うんですか。
B : ああ、それは「アットマク」って言うんですよ。英語(えいご)のアットと同(おな)じで場所を示(しめ)すんですよ。
A : そうですか。
B : 韓国では「ゴルベンイマク」って言うんだっけ。

A : 좀 묻고 싶은 것이 있는데, 인터넷주소에서 동그라미 안에 'a' 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뭐라고 하는 겁니까?
B : 아, 그건 '애트마크'라고 하는 겁니다. 영어의 애트와 마찬가지로 장소를 나타내는 거예요.
A : 그렇습니까?
B : 한국에서는 '골뱅이 표시'라고 했던가?

示(しめ)す : 나타내다
っけ : 종조사(상대에게 과거의 회상이나 한 번 들은 것을 한번 더 물을 때)

니하오 쑹구위 <15>

你吃饭了吗?
식사 하셨어요?

A: 奶奶您好!
Nǎinai nín hǎo!
나이나이 닌 하오!
B: 请进。
Qǐng jìn.
칭 진.
A: 奶奶您吃饭了吗?
Nǎinai nín chī fàn le ma?
나이나이 닌 초판 러 마?
B: 我吃饭了, 你呢?
Wǒ chī fàn le, nǐ ne?
웬 초판 러, 니 네?

A: 할머니 안녕하세요?
B: 물어오게.
A: 할머니 식사 하셨어요?
B: 먹었는데, 저녁은?

您 [Nín] 당신(你尊敬어)
請 [Qǐng] 요구, 부탁하다
吃飯 [chī fàn] 밥을 먹다

한자 이야기 <655>

鳶飛魚躍(연비어약)
솔개 연, 날 비, 물고기 어, 뿔 약

연비어약(鳶飛魚躍)은 솔개(鳶)가 날고 물고기(魚)가 뛰는 뜻. 성군(聖君)의 치적(治績)으로 이 세상이 자연 그대로의 질서를 조화롭게 유지하고 있는 상태를 일컫는다.

이 말은 '시경(詩經)'의 대아(大雅) 한록(旱麓) 편에서 주나라 임금이 선조의 공적을 잘 이어받았음을 칭송하는 시에서 나온다.

“솔개는 날아 하늘에 이르거늘 / 물고기는 못에서 뛰놀도다 / 즐겁고 평화로운 군자(君子)여 / 어찌 사람을 진작(振作)시키지 않으리오”

솔개는 아래에 있을 때는 힘이 없다가도 상공(上空)에 이르면 몸을 숙구쳐 날개를 곧게 펴 뽀뽀로 힘차게 날아다닌다. 물고기도 땅에서는 전혀 힘을 쓰지 못하다가도 물에 들어가면 유유히 헤엄쳐 다닌다. 솔개가 나는 것이나 물고기가 못 속에서 뛰는 것은 일부러 힘을 들여 노력하지 않아도 천지자연의 조화로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 성군의 다스림이란 바로 이런 조화로운 자연의 세계를 인간세계에도 유지하는 것이라는 말이다.

‘연비어약’은 정도(正道)에 맞게 세상이 돌아감을 표현한 말이다. 인위적으로 질서체계를 바꾸면 결국 솔개는 아무리 노력하여도 날지 못하고 물고기는 결국 뛰질지 못하게 된다.

<동아 외국어학원 제공>
www.donga.tv ☎ 222-6253

<광주 글로벌 외국어학원 제공>
http://kglobal.wo.to ☎ 228-2545

<광주중국어어학원(상무지구 금호대우A 옆)>
☎ 383-1605

<한여원(韓睿媛)>
조선대학교 한문학과 교수 ☎ 230-7353